월간노동리뷰 | 2010년 5월호 pp.18~31
ⓒ 한국노동연구원

최근의 상용직 근로자 증가 실태분석

황 덕 순*

Ⅰ. 머리말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크게 이루어질 것인가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에도 전반적인 고용조정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상용직의 고용은 절대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용직의 고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상용직 고용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상용직 증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주체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현상일 경우에는 이를 추동하는 거시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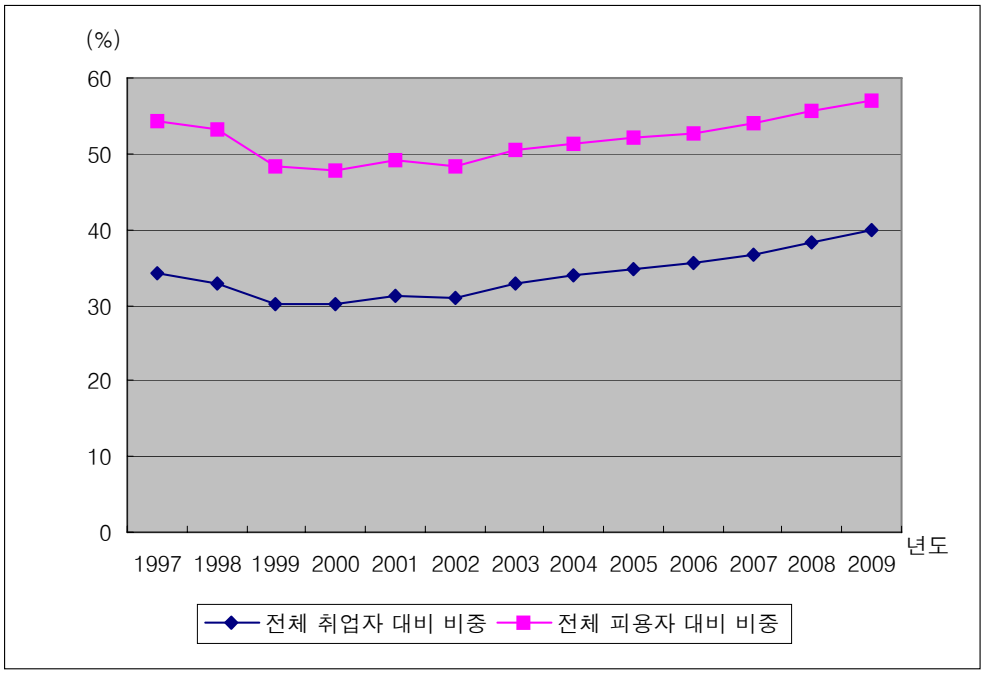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고용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서 상용직 증가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로부터 상용직의 증가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추이

[그림 1]은 상용직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및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그림 1〕 상용직 고용의 추이(1997~20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을 이용).

화 추이를 보여준다. 1997년 이후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용직의 고용비중은 2000~02년을 경계로 뚜렷이 추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상용직의 고용비중이 하락했지만, 2003년부터는 상용직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이 보여주는 2002년 이후의 추세적인 증가현상이 여러 개의 경기순환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의 변화를 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홍민기(2009)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나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은 경기에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상용직은 경기에 2분기 후행하고, 임시직은 동행, 일용직은 1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1~2분기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고용조정이 경기에 반응하는 시차는 크지 않다.[1] 따라서 최근의 경제위기하에서 2009년에 상용직 고용비중이 더 높아지는 현상에서 경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02년 이후의 상용직 고용비중 증가 추세가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 황수경(2009)의 경우에도 상용직의 경기후행성, 임시직의 경기동행성, 일용직의 경기선행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용직 근로자 고용비중 증가 추세가 전체 노동시장 내에서 특정한 노동자 집단이나 산업, 혹은 직업 등의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상용직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4~09년의 시기를 다룬다.[2] <표 1>은 성, 연령, 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등 중요한 변수별로 상용직의 비중과 규모가 2004~09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노동시장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용직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3.8%에서 2009년 40.0%로 6.2%포인트 늘어났고, 상용직 근로자는 176만 5천 명 늘어났다.

한 가지 예외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이다. 이 부문에서는 2009년에 상용직 비중이 65.7%로서 2004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이 산업의 임시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 산업의 2008년 상용직 비중은 79.1%로서 2004년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상용직 비중이 늘어나거나 변화가 없더라도 해당 집단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총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상용직 고용이 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포인트 늘어났지만, 절대적인 고용규모는 4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장치기계 및 조립직도 상용직 비중은 변화가 없지만 고용규모는 약간 감소하였다.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집단을 살펴보면 두드러지는 것이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사무직, 산업별로는 사업서비스업과 교육보건사회복지업이다. 직업과 산업별로 보면 각각에서 위 두 집단이 전체 상용직 고용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99인 규모에서 증가한 상용직이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40대의 상용직 고용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Ⅲ. 상용직 근로자 비중 변화의 요인 분해

앞에서 노동시장 내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명확히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상용직 고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고용관리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

2) 2004년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통계청에서 2004년 이후에 대해서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직업분류 및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상용직 근로자수와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변화(2004→2009)

(단위 : 천 명, %)

		2004	2009	2004→2009 증가분	전체 증가수 대비 비중
전 체		7,625 (33.8)	9,390 (40.0)	1,765 (6.2)	100.0
성	남자	5,336 (40.5)	6,338 (46.2)	1,002 (5.7)	56.8
	여자	2,289 (24.4)	3,051 (31.2)	762 (6.8)	43.2
연령	29세 이하	2,115 (46.2)	2,070 (52.3)	-45 (6.1)	-2.5
	30~39세	2,695 (43.6)	3,243 (55.6)	548 (12.0)	31.0
	40~49세	1,870 (30.1)	2,496 (38.3)	626 (8.2)	35.5
	50~59세	798 (23.9)	1,311 (29.2)	513 (5.3)	29.1
	60세 이상	148 (6.6)	270 (10.1)	122 (3.5)	6.9
사업체 규모	4인 이하	272 (2.8)	581 (6.1)	309 (3.3)	17.5
	5~9인	747 (24.8)	1,088 (34.0)	341 (9.2)	19.3
	10~29인	1,689 (48.9)	2,153 (56.0)	464 (7.1)	26.3
	30~99인	2,058 (69.4)	2,402 (72.5)	344 (3.1)	19.5
	100~299인	1,215 (81.5)	1,377 (84.3)	162 (2.8)	9.2
	300인 이상	1,644 (89.8)	1,788 (90.2)	144 (0.4)	8.2
산업	농림어업	15 (0.8)	17 (1.0)	2 (0.2)	0.1
	광업	10 (66.5)	16 (69.9)	6 (3.4)	0.3
	제조업	2,325 (55.7)	2,395 (62.4)	70 (6.7)	4.0
	전기가스수도업	93 (76.0)	137 (82.0)	44 (6.0)	2.5
	건설업	359 (19.7)	520 (30.2)	161 (10.5)	9.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16 (12.2)	949 (17.1)	233 (4.9)	13.2
	사업서비스업	2,081 (49.3)	2,742 (55.4)	661 (6.1)	37.5
	공공행정·국방사회 및 사회보장행정	624 (81.3)	678 (65.7)	54 (-15.6)	3.1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	1,105 (51.8)	1,558 (55.1)	453 (3.3)	25.7
	예술·스포츠 및 개인서비스	298 (18.4)	379 (21.5)	81 (3.1)	4.6
직업	관리직	241 (40.2)	338 (61.9)	97 (21.7)	5.5
	전문직	1,958 (56.5)	2,770 (62.6)	812 (6.1)	46.0
	사무직	2,452 (74.4)	2,790 (77.7)	338 (3.3)	19.2
	서비스직	294 (11.3)	456 (18.1)	162 (6.8)	9.2
	판매직	345 (10.8)	413 (13.8)	68 (3.0)	3.9
	농림어업직	12 (0.7)	14 (0.9)	2 (0.2)	0.1
	기능직	572 (24.3)	727 (33.3)	155 (9.0)	8.8
	장치기계 및 조립직	1,253 (48.4)	1,247 (48.4)	-6 (0)	-0.3
	단순노무직	498 (18.1)	636 (20.2)	138 (2.1)	7.8

주 : 2004년과 2009년의 괄호는 해당 집단 상용직 근로자의 해당 집단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고용의 증가현상을 고용관리 방식의 변화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상용직의 고용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상용직 고용비중의 증가폭은 0.4%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용직 고용규모 증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분은 8.2%를 차지한다. 이는 이 집단의 경우 상용직 고용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집단 내에서는 상용직 비중에 변화가 없더라도 이 집단의 고용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는 상용직 고용비중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용직 비중의 증가현상을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같은 부문에서 상용직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과 상용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부문의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용직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상용직이 고르게 증가하는가, 아니면 상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특정 산업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용직이 증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고용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다음 식과 같이 분해해 볼 수 있다.

$$\Delta X_t = \sum_k \overline{s_{kt}} \cdot \Delta x_{kt} + \sum_k (\overline{x_{kt}} - \overline{X_t}) \cdot \Delta s_{kt} \quad \cdots\cdots (1)$$

식 (1)에서 k는 개별 산업을 나타내고, t는 시기이다. 식 (1) 왼쪽의 ΔX_t는 두 시점 사이의 전체 고용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분이다. 그리고 식 (1) 오른쪽의 앞부분은 상용직의 산업내 비중 변화의 기여분이고 뒷 부분은 산업 사이의 고용비중 변화의 기여분이다. s_{kt}는 t기에 k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x_{kt}는 t기 k산업의 상용직 고용비중이다. 식 (1)에서 윗줄을 한 변수는 두 시점(t와 $t-1$)의 해당 변수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앞부분의 상용직의 산업내 비중 변화는 두 시점 사이의 산업별 상용직 비중 변화를 두 시점의 해당 산업 고용비중의 평균값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한편 산업 사이의 고용비중 변화의 기여분은 두 시점 사이의 각 산업의 고용비중 변화를 두 시점의 해당 산업 상용직 고용비중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상용직 비중의 차이를 평균한 값으로 가중평균함으로써 구해진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 직업 및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상용직의 비중 변화를 부문내 변화와 부문간 변화로 분해한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별 하위집단 분류방식은 <표 1>의 각 변수별 하위집단과 같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분석방법이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가 미친 각각의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들 세 변수의 종합적인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 2>에서 계산된 산업간

변화, 직업간 변화, 규모간 변화의 효과를 모두 합함으로써 산업, 직업, 규모에 따른 고용분포 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2>에 따르면 2004~09년 사이의 상용직 고용비중 변화에서 산업간 고용비중 변화나 직업간 고용비중 변화, 규모간 고용비중 변화의 효과는 모두 각각 27~28% 내외를 차지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서 이들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용직의 고용비중 증가가 70% 이상에 이른다. 산업과 직업, 규모 변수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3] 이는 산업구조나 직업구조의 변화, 혹은 규모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 이외에 상용직의 고용비중 증가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간 변화나 직업간 변화, 혹은 규모간 변화가 상용직 고용비중 증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해당 기간 전체로는 27~28% 내외에 불과하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09년 사이에 상용직의 고용비중이 1.75% 늘어났는데, 이 시기의 경우에는 규모간 고용비중 변화의 기여분이 68.7%로 전체 상용직 비중 증가현상의 2/3 이상을 설명한다. 즉 상용직 고용비중이 높은 대규모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하에서 상용직 고용유지, 혹은 채용유지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상용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7~08년 사이에는 직업간 고용비중 변화의 기여분이 44.0%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도 직업간 고용비중 변화의 기여분은 1/3 내외를 설명한다.

〈표 2〉 산업 · 직업 · 규모에 따른 상용직 비중 변화의 요인 분해(2004~09)

(단위 : %)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4→2009
전 체		0.84	0.80	1.35	1.41	1.75	6.15
산업	산업내 변화	0.61(72.5)	0.54(67.2)	1.12(82.7)	1.13(79.7)	0.09(62.2)	4.45(72.3)
	산업간 변화	0.23(27.5)	0.26(32.8)	0.23(17.3)	0.29(20.3)	0.66(37.8)	1.70(27.7)
직업	직업내 변화	0.54(64.1)	0.54(67.9)	1.10(81.4)	0.79(56.0)	1.39(79.7)	4.41(71.7)
	직업간 변화	0.30(35.9)	0.26(32.1)	0.25(18.6)	0.62(44.0)	0.35(20.3)	1.74(28.3)
규모	규모내 변화	0.78(92.4)	0.81(101.5)	1.23(91.5)	1.04(73.6)	0.55(31.3)	4.42(71.8)
	규모간 변화	0.06(7.6)	-0.01(-1.5)	0.11(8.5)	0.38(26.5)	1.2(68.1)	1.73(28.2)

주 : 괄호는 전체 비중 변화 대비 부문내 변화와 부문간 변화의 설명력의 크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 예를 들어 상용직의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평균적인 사업체 규모가 클 수 있다.

Ⅳ. 상용직 근로자 고용규모 변화와 노동이동

상용직 고용규모라는 저량변수(stock variable)의 변화는 상용직으로의 입직 및 이직,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으로의 이직 등과 같은 노동이동 규모, 즉 유량변수(flow variable)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서로 다른 방식의 노동이동을 통해서도 동일한 고용규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이 100명 늘어나는 현상은 1,000명의 입직과 900명의 이직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500명의 입직과 400명의 이직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동일하게 100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두 유형의 노동시장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2004년 이후의 상용직 근로자 고용규모의 변화가 노동이동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황덕순(2009)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서 특정한 임금근로자 집단의 고용규모 변화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

$$\Delta E = EN - EX = EN - (EXu + EXn + EXe) \quad \cdots\cdots (2)^{4)}$$

식 (2)에서 ΔE는 상용직의 두 시기 사이의 고용변화이고, EN은 두 시기 사이의 신규취업자(조사전월 취업자), EXu는 두 시기 사이의 신규실업자(조사전월에 상용직으로부터 실업으로의 이직자), EXn은 두 시기 사이의 신규비경제활동 진입자(조사전월에 상용직으로부터 비경제활동상태로 이직한 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ΔE와 EN, EXu, EXn은 설문 문항으로부터 바로 구할 수 있는 반면, EX와 EXe는 다른 값들을 이용해서 구한다. 두 시기 사이의 이직자인 EX는 ΔE와 EN으로부터 구해지고, 다른 일자리로 이직한 자인 EXe는 EX와 EXu, EX을 이용해서 구한다. EX와 달리 EN의 경우에는 현재의 설문으로부터 총량보다 더 세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 고용규모의 변화를 측정하는 두 시점은 2004~10년의 각년도 1월이며 입직 및 이직과 같은 유량변수들은 2005~09년도의 각년도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조사된 '조사전월의 값'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서 매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매월마다 서로 다른 표본(매월 1/36씩 표본을 교체)을 이용해서 조사되고, 분석에서 사용

4) 시기를 나타내는 하첨자 t는 생략하였다.

하는 저량변수의 기준시점(매월 15일이 들어있는 주)과 유량변수의 기준시점(조사전월)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EX와 EXe에는 위와 같은 조사나 분석방법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반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분석방법은 상용직 전체가 아니라 상용직을 여러 가지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체 상용직의 고용규모 변화와 유출입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림 2]~[그림 7]은 전체 상용직, 남자 상용직, 여자 상용직에 대해서 순입직과 총입직 및 총이직 규모, 이직방향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본 것이다. 또한 <표 3>은 [그림 2]~[그림 7]의 기초가 되는 변수값들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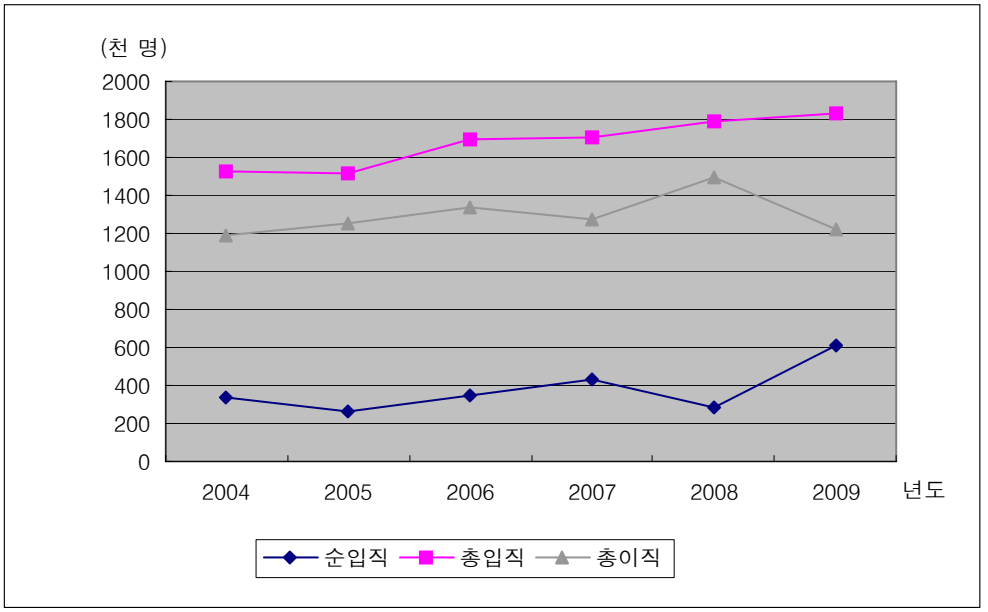
〈표 3〉 상용직 규모 변화와 연간 노동이동 규모 추이(2004.1~2010.1)

(단위 : 천 명, %)

		상용직수	순입직	총입직	총이직	이직방향		
						실업	비경제활동	취업
전체	2004	7,426	341(4.6)	1,528(20.6)	1,187(16.0)	359(30.2)	516(43.5)	312(26.3)
	2005	7,767	263(3.4)	1,519(19.6)	1,256(16.2)	367(29.2)	494(39.3)	395(31.4)
	2006	8,030	352(4.4)	1,691(21.1)	1,339(16.7)	375(28.0)	548(40.9)	416(31.1)
	2007	8,382	433(5.2)	1,705(20.3)	1,272(15.2)	410(32.2)	490(38.5)	372(29.2)
	2008	8,815	287(3.3)	1,786(20.3)	1,499(17.0)	414(27.6)	626(41.8)	459(30.6)
	2009	9,102	610(6.7)	1,836(20.2)	1,226(13.5)	462(37.7)	680(55.5)	84(6.9)
남자	2004	5,258	152(2.9)	931(17.7)	779(14.8)	234(30.0)	227(29.1)	318(40.8)
	2005	5,410	85(1.6)	907(16.8)	822(15.2)	239(29.1)	223(27.1)	360(43.8)
	2006	5,495	197(3.6)	1,014(18.5)	817(14.9)	254(31.1)	235(28.8)	328(40.1)
	2007	5,692	229(4.0)	992(17.4)	763(13.4)	272(35.6)	205(26.9)	286(37.5)
	2008	5,921	238(4.0)	1,045(17.6)	807(13.6)	285(35.3)	292(36.2)	230(28.5)
	2009	6,159	354(5.7)	1,066(17.3)	712(11.6)	322(45.2)	281(39.5)	109(15.3)
여자	2004	2,168	189(8.7)	597(27.5)	408(18.8)	125(30.6)	290(71.1)	-7(-1.7)
	2005	2,357	177(7.5)	612(26.0)	435(18.5)	129(29.7)	271(62.3)	35(8.0)
	2006	2,534	156(6.2)	677(26.7)	521(20.6)	121(23.2)	313(60.1)	87(16.7)
	2007	2,690	204(7.6)	713(26.5)	509(18.9)	138(27.1)	285(56.0)	86(16.9)
	2008	2,894	49(1.7)	741(25.6)	692(23.9)	130(18.8)	334(48.3)	228(32.9)
	2009	2,943	256(8.7)	770(26.2)	514(17.5)	139(27.0)	398(77.4)	-2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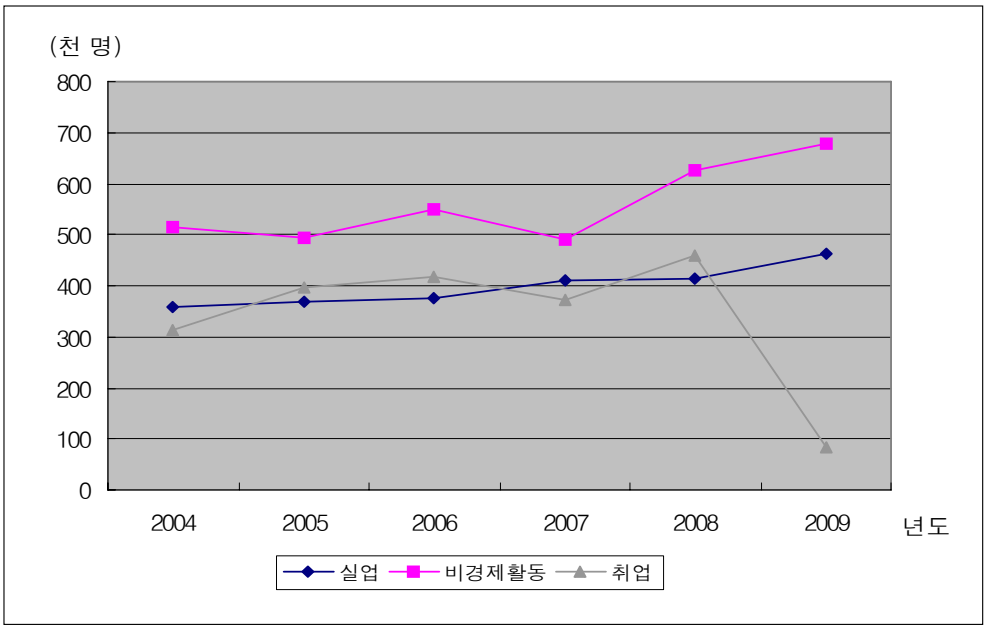
주 : 상용직수는 각년도 1월 기준, 순입직, 총입직, 총이직의 괄호는 상용직수 대비 비중, 이직방향의 괄호는 총이직 대비 각각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상용직 일자리로의 순입직 및 총입직과 총이직(전체 : 2004.1~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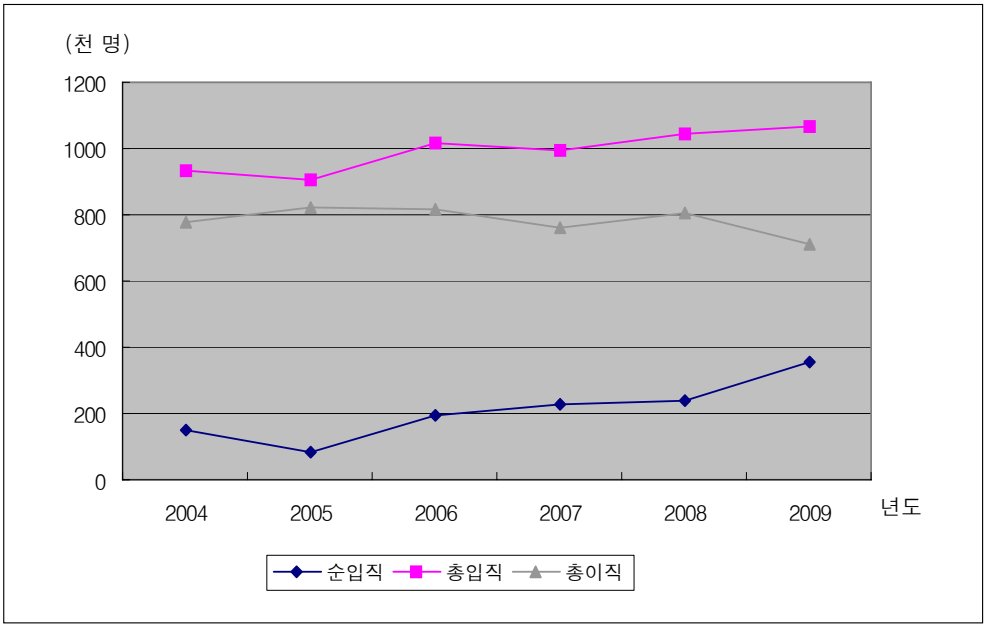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상용직 일자리로부터의 이직방향(전체 : 2004.1~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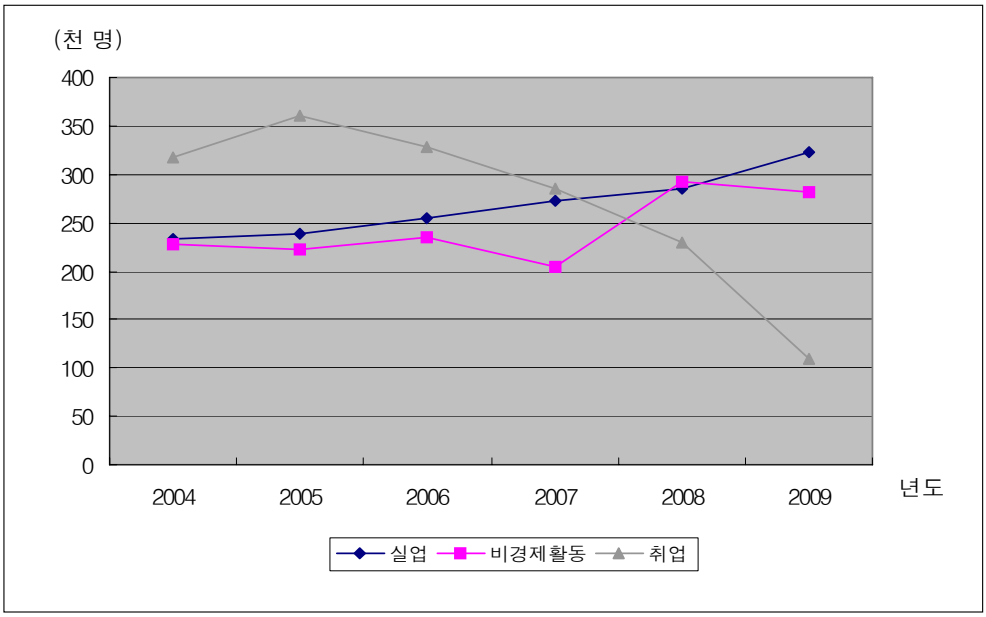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4〕 상용직 일자리로의 순입직 및 총입직과 총이직(남자 : 2004.1~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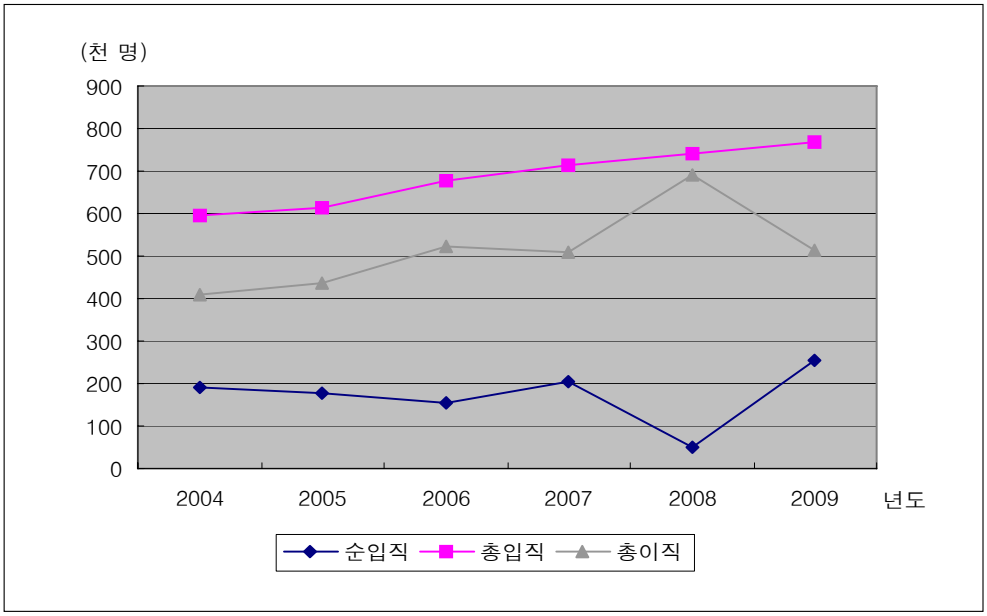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5〕 상용직 일자리로부터의 이직방향(남자 : 2004.1~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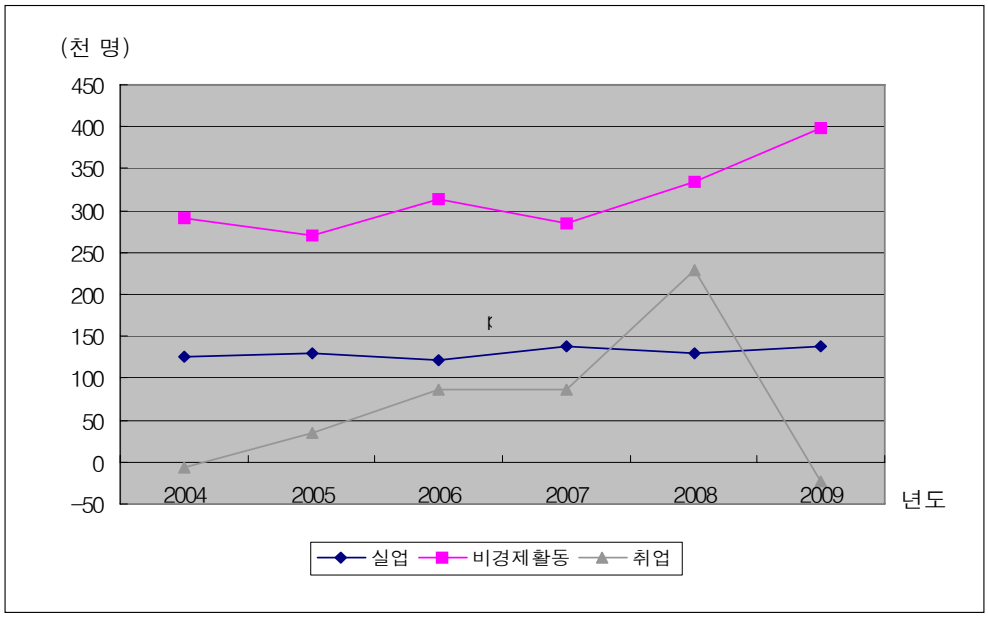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6〕 상용직 일자리로의 순입직 및 총입직과 총이직(여자 : 2004.1~201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7〕 상용직 일자리로부터의 이직방향(여자 : 2004.1~201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우선 상용직 전체의 고용규모 변화(순입직)와 상용직으로의 총입직 및 상용직으로부터의 총이직을 살펴보면 상용직 일자리로의 총입직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규모 변화폭이 시기별로 달라지는 주요인은 상용직 일자리로부터의 이직규모 변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2007년보다 상용직 고용규모 증가폭이 작아진 것은 상용직 일자리로부터의 이직규모가 커진 데 주로 기인하며, 2009년에 상용직 고용규모 증가폭이 커진 것은 상용직 일자리로부터의 이직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에 경제위기의 영향이 주로 상용직 신규채용 축소보다는 상용직으로부터의 이직감소라는 형태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용직의 규모가 늘어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왜 꾸준히 상용직의 채용규모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직은 줄어들고 있는가를 밝혀야 하며,[5] 상용직 규모의 변화가 시기마다 달라지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응한 기업의 해고 관행 및 근로자들의 이직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의 이직방향을 살펴보면 실업과 비경제활동으로의 이직규모, 특히 실업으로의 이직규모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다른 일자리로의 이직이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3 참조).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경제위기시에 전반적인 이직규모도 줄어들었지만,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으로의 이직은 오히려 늘어났고, 다른 일자리로의 이직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다른 일자리로의 이직이란 조사전월에 상용직 일자리로부터 이직해서 곧바로 같은 달에 다른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경제위기시에 재직 중 직장탐색에 의한 이직의 기회가 줄어들고, 마찰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남자 상용직과 여자 상용직의 노동이동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남자 상용직, [그림 6]과 [그림 7]은 여자 상용직의 고용규모 변화와 노동이동 규모를 보여준다. 우선 <표 3>으로부터 전반적인 총입직 및 총이직 규모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총입직 및 총이직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자의 노동이동이 활발하다는 점, 즉 같은 상용직이라도 고용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남자 상용직의 고용규모 증가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2007년과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고용규모 증가폭이 커지지만 다른 해에는 고용규모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다(그림 4 및 그림 6 참조). 이 점도 남자 상용직이 여자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자와 여자의 안정성 차이는 주로 시기별로 여자 상용직의 이직규모가 변동성이 큰 데 기인한다. 여자 상용직

5) 상용직의 전체 규모에서 총입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총입직 규모는 증가하지만, 상용직 고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으로의 총입직규모는 남자보다 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직규모의 변동폭은 남자에 비해 훨씬 크다.

이직시 유출방향에서도 남자 상용직과 여자 상용직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우선 이직 후 미취업으로 이동할 때 남자의 경우 대체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비슷한 데 비해, 여자의 경우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집단의 크기도 남자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여자의 경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큰 폭으로 떨어진다.[6] 이는 남자 상용직의 고용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자 상용직으로 신규입직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뿐만 아니라 재직 중 직장탐색을 통한 이직, 혹은 실직후 단기간의 직장탐색을 통한 이직이 왜 2005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여자 상용직의 고용규모 변화폭이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재직 중 직장탐색 및 실직후 단기간의 직장탐색을 통한 이직의 변화폭이 왜 시기별로 크게 달라지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용직의 고용비중이 200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 고용비중의 증가는 경기요인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추세적인 변화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내의 거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상용직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고용관리 방식의 변화가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세 번째로 상용직 고용비중 변화를 상용직 고용 자체의 증가에 따른 효과와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의 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변화의 기여분이 2004~09년 사이에 각각 27~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직업간 고용구조 변화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구조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 즉 고용관리 방식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다만 경제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2009년의 경우 사

6) [그림 7]에서 2009년에 여자 상용직의 다른 일자리로의 유출규모가 음의 값을 나타내는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EXe(다른 일자리로의 이동)에 자료 및 분석방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오차가 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업체 규모간 고용비중 변화의 효과가 이 시기의 상용직 고용비중 변화의 2/3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상용직 고용규모 증가가 어떤 노동이동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상용직으로의 입직규모가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이직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 기인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상용직의 증가폭이 달라지는 주요인은 상용직 일자리로의 입직보다는 이직규모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용직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왜 꾸준히 상용직의 채용규모가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상용직의 채용비중이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상용직 규모의 증가폭이 시기마다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응한 기업의 해고 관행 및 근로자들의 이직행위 변화, 특히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재직 중 직장탐색을 통한 이직 및 실직후 단기간의 직장탐색을 거친 이직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상용직 증가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용직 고용증가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경기변동이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변화와 같은 요인들로는 최근의 상용직 고용증가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제시하였다.[7)] KLI

<참고문헌>

홍민기(2009), 「경기변동과 성별 고용변화」, 『노동리뷰』 5월호, 통권 제53호, 한국노동연구원, pp.60-69.

황덕순(2009), 「경제위기가 노동이동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5월호, 통권 제53호, 한국노동연구원, pp.44-59.

황수경(2010),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노동시장의 대응」, 황수경·윤윤규·조성재·전병유·박경로·안주엽, 『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pp.9-25.

7)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상용직의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상용직의 근로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86.6%로 2004년의 88.9%에 비해서는 오히려 약간 낮아졌다. 또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규모 및 전반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비정규직법의 효과로 상용직의 고용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용직 고용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